

# 《客商一覽醒迷》의 번역과 상업언어 연구\*

강용중\*\*

## 〈目 次〉

1. 서론
2. 《客商一覽醒迷》의 소개와 연구방법
3. 《客商一覽醒迷》의 번역과 상업언어
4. 결론

## 1. 서론

중국사에 있어서 명청대는 어느 때 보다 상업이 발달했다. 이러한 상업의 발전은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초래했으며, 문학이나 언어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문화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업발전은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 명청대 상업의 발전은 경제적 지표나 무역거래 등에도 나타나지만 상업적 의식의 발전과 더불어 상업서(商業書)<sup>1)</sup>라는 독특한 전문서적을 탄생시켰다. 상업서란 상업과 관련된 지식이나 도덕규범 등을 정리해 놓은 책으로, 특히 명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현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책은 《客商一覽醒迷》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업서에 대한 소개나 인식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의 학술에 관련해서는 儒學이나 諸子에 대한 연구가, 종교에 대해서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8A01053894).

\*\*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1) 중국에서는 줄여서 '商書'라고도 한다.

는 불교와 도교가, 그 밖의 영역에서는 문학, 언어, 예술, 의학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간에서나 상업에 종사하던 상인들에게만 전파되었던 상업서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사실은 그리 이상할 것도 없다. 다만 중국인의 商術과 商慣行 혹은 商道는 중국문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명대 이후 중국문화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번역이나 체계적인 소개가 절실하다 하겠다. 기실 상업서에 대한 연구는 중국사회경제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선행연구 또한 이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더라도 역사학 특히 명청사 연구자들이 주로 소개와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려는 대표적인 상업서인 《客商一覽醒迷》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校註本은 있으나 아직까지 번역본이 나온 적이 없으며, 내용 또한 기존의 학술문헌과는 달리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문체 또한 고문과 명대의 구어 및 방언어휘 그리고 상업관련 전문용어가 반영되어 있어 관심이 있는 독자나 연구자가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상업서인 《客商一覽醒迷》는 다른 중국 전통 문헌과는 달리 그간 학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변변한 주석서도 없다. 그러므로 이 책의 소개와 번역은 우리나라의 중국사학계나 중국문화관련 연구자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게다가 이 책이 상업서이니만큼 상업과 관련된 언어를 분석하는 것은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客商一覽醒迷》의 소개와 번역에 대한 시론적인 견해를 정리할 것이며, 상업서의 중요한 표지인 상업용어를 대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해 《客商一覽醒迷》의 번역 사례를 소개하고, 특징적인 상업어휘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우선 2장에서는 《客商一覽醒迷》의 서지적 소개를 진행하고 본고와 관련된 연구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客商一覽醒迷》의 기본 내용도 소개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客商一覽醒迷》의 번역과 관련한 몇 가지 원칙을 정리하고, 또 전문용어로 분류되는 상업어휘를 복음절사 위주로 근대중국어 시기에 해당하는 구어를 선별하여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상업서에만 보이는 독특한 표현양식과 몇몇 방언 성분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본고가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客商一覽醒迷》의 국내 소개와 번역작업 및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2. 《客商一覽醒迷》의 소개와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동시에 《客商一覽醒迷》의 내용과 체재를 아울러 소개하며, 선행연구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 1) 《客商一覽醒迷》의 내용과 체재

우선 이 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고자 한다. 《客商一覽醒迷》는 명대의 福建 상인 李晉德이 崇禎八年(1635)에 간행한 상업서이다. 《客商一覽醒迷》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商賈一覽醒迷
- 目錄
- 1. 商賈醒迷 內附悲商歌 警世歌
- 2. 警世歌
- 3. 逐月出行吉日
- 4. 憎天翻地覆時
- 5. 楊公忌日
- 6. 六十甲子逐日吉兪

처음에 보이는 〈商賈醒迷〉은 이 책의 본문에 해당한다. 이의 부록으로는 〈悲商歌〉 30首와 〈警世歌〉 16首가 있다. 이어서 〈警世歌〉 24首를 따로 수록하고 있다. 이 24首의 〈警世歌〉는 〈商賈醒迷〉의 부록 〈警世歌〉 16首와는 달라 출처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逐月出行吉日〉은 매일 길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내용은

없다. 이어서 보이는 〈僧天翻地覆時〉는 매월 번고가 많은 날짜를 하나씩 들고 있으며, 이 또한 대단히 간략하다. 다섯 번째에 보이는 〈楊公忌日〉에도 마찬가지로 上官(관부에 부임하는 것을 나타냄), 이사, 安葬, 혼인, 출행, 화물적재, 거래 등에서 반드시 피해야하는 날짜를 매월 하루씩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六十甲子逐日吉凶〉에서는 六十甲子에 따라 각각의 운세가 기록되어 있으며 吉凶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본문에 해당하는 〈商賈醒迷〉의 체제는 [원문]과 [주석]의 형태로 되어 있다. 楊正泰의 校注本(275쪽)의 한 단락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원문] 門雖無貨，但物精地潔，不妨。店縱有人，若牖<sup>2)</sup>網<sup>3)</sup>，可懼<sup>3)</sup>。

가게에 비록 물건이 많지 않아도 정선되어 있고 실내도 깨끗하다면 괜찮다. 점포에 사람이 있어도 창문에 거미줄이 끼고 의자에 먼지가 있다면 우려할 만하다.

[주석] 觀人家之盛衰，在宅居之垢潔。行中雖無貨物，但精潔不塵，必是興旺之家。若莓苔滿地，塵網盈庭，縱有人居，必爲廢敗無人拘管之室。

한 집안이 흥할지 쇠락할지는 그 집이 깨끗한지 아니면 더러운지를 보면 된다. 가게에 비록 물건이 많지 않아도 정결하고 먼지가 없다면 틀림없이 번창한 집이다. 만약 사방에 이끼가 끼고 온 집안에 먼지 낀 거미줄이 가득하다면 비록 사람이 살고 있어도 황폐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집처럼 보일 것이다.

여기에서 보는 대로 우선 원문에서 짧은 구절이 등장하고, 이어서 원문에 대한 상세한 풀이가 보인다. 한편 〈商賈醒迷〉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 학자 斯波義信의 《新刻客商一覽醒迷天下水陸路程》略論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선 〈商賈醒迷〉의 체제와 부분적인 내용은 明 萬曆년간에 간행된 《三台萬用正宗》卷21 〈商旅門·客商規鑒論〉에서 기원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商賈醒迷〉는 이후의 상업서인 《仕商要覽》와 《商賈便覽》에 각각 55조와 42조가 그대로 채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商賈醒迷〉가 전후의

2) 일본 山口大學 소장 원본에는 '牖(廳)'이나 양정태 본에는 '牖'으로 되어 있다.

3) 山口大學 원본에는 '懼(속자)'를 쓰고 있다. '懼'는 '懼'의 속자이다.

상업서의 맥락을 잇고 있는 중요한 저작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斯波義信은 〈商賈醒迷〉의 내용을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 A. 才能과 競爭 23條
- B. 人格主義 58條
- C. 經營과 管理 55條
- D. 商業出行時 注意點<sup>4)</sup> 10條
- E. 都賣 및 販賣 關聯<sup>5)</sup> 108條
- F. 官牙와의 접촉 및 교섭 6條

앞에서 보는 대로 〈商賈醒迷〉의 내용은 이상의 여섯 개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260條가 각각의 주제에 따라 서로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다소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새로운 분류도 가능하다.

운문부분은 〈商賈醒迷〉에 [悲商歌] 30수와 [警世歌] 16수가 있다. 그 중의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楊正泰의 校注本 300쪽[悲商歌] 제17수).

其十七

畫角<sup>6)</sup>聲裂動客悲<sup>7)</sup>, 夜深長嘆幾千回。追思<sup>8)</sup>未了平生志, 功業無成兩鬢催<sup>9)</sup>。

화각의 찢어질듯 한 소리가 객상을 슬픔에 빠지게 하고, 깊은 밤 장탄식을 몇 천 번이나 했던가? 다하지 못한 일생의 뜻을 되짚어 생각해보면

4) 斯波義信의 중문번역본 논문에서는 '旅行心得'라 하였으나, 내용에 맞게 '商業出行時 注意點'으로 수정한다.  
5) 斯波義信의 중문번역본 논문에서는 '批發銷售機構'라 하였으나, 내용에 맞게 '官牙와의 접촉 및 교섭'으로 수정한다.  
6) 畫角은 악기의 한 종류로 대나무 또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며, 표면에 그림을 그려 넣어 '畫角'이라 했다. 일반적으로 일출이나 일몰시에 불어 경보나 시간을 알리는데 썼다고 전해진다.  
7) 全唐詩(卷270-89, 戎昱의 〈桂州口號〉)에 "畫角三聲動客愁, 曉霜如雪覆江樓。誰道桂林風景暖, 到來重著白貂裘."라는 시가 보여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8) 追思는 '追憶하다', '思念하다'의 의미로, 주로 돌아가신 분이나 멀리 떠난 가족 또는 옛 친구 등을 추억한다는 뜻이다.  
9) 賀知章의 《回鄉偶書》에 '少小離家老大回, 鄉音不改鬢毛衰.'라는 구절에서 전고를 사용했다.

이런 일은 없는데 양쪽 귀밑머리에 흰머리 재촉하네.

여기에서 보는 대로 운문은 한 수가 七言四句로 되어있다. 이들 시구는 대부분 객상의 艱苦한 처지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 또는 상거래에서 중요시해야 하는 덕목 등을 노래하고 있다. 〈商賈醒迷〉 전체 체재에서 이러한 시가의 비중은 작지만, 내용적으로 본문의 산문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客商의 정서를 오히려 시적으로 잘 승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선행연구

상업서는 중국 전통학문과 문화 예술 분야와 비교하면 상당히 미미한 영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서는 오히려 상인이라는 신분적 특수성과 특히 명청시대 이후 발달한 사회관계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상업에 대한 세계와 그들의 가치관 혹은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료적인 가치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의 개력개방 이래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와 상업의 이해에 있어서 중국 상인의 전통적인 풍모나 상관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는 더해진다 하겠다.

현전하는 중국의 명청대의 전통 상업서로는 《客商一覽醒迷》 이외에도 다음의 것들이 있다.<sup>10)</sup>

黃汭《一統路程圖記》明 隆慶刊  
 陶承慶《商程一覽》明 萬曆刊  
 余象斗《新刻天下四民便覽三台萬用正宗·商旅門》明 萬曆刊  
 程春宇《士商類要》明 天啓刊  
 詹漪子《士商要覽》明 崇禎刊  
 吳中孚《商賈便覽》清 乾隆刊  
 王秉元《生意世事初階》清 抄本  
 王秉元《貿易須知》清 光緒刊

10) 張海英, 〈從明清商書看商業知識的傳授〉, 《浙江學刊》2007/02(83~90쪽) 참조.

상업서의 대체적인 분류는 《一統路程圖記》와 같은 상업교통로 정보를 수록한 것이 있는가하면, 《萬寶全書》와 같은 日用類書에 수록된 〈算法〉등과 같은 계산방법을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주류를 이루는 것은 상업관행이나 상도덕 등을 다루는 것이 대종을 이룬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상업서의 소개나 전과과정, 상업교육 또는 상업관념 등의 방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sup>11)</sup> 《客商一覽醒迷》를 독립적으로 다룬 논문은 없으나 다른 주제의 논문에서 방계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대만의 陳學文이나 복단대학의 張海英이 있다.

한편 일본에는 斯波義信, 山根幸夫, 大林洋五 등의 학자들이 《客商一覽醒迷》를 직접 제목으로 특정하여 소개했다. 斯波義信은 앞에서 본대로 내용을 분류하고, 기타 상업서와의 문헌 전승관계에 대해 논했다. 山根幸夫의 논문에서는 《客商一覽醒迷》에 대한 서평을 했으며, 大林洋五의 그것은 강연원고로 주로 중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정신이라는 주제 하에 《客商一覽醒迷》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국내에서는 홍성화교수<sup>12)</sup>의 〈明代後期 商業書를 통해서 본 客商의 윤리의식〉에서는 상업서 전반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으며, 이어서 《士商類要》와 《客商一覽醒迷》를 중심으로 客商의 윤리의식을 ‘불안한 교환의 세계’, ‘신용과 자선활동의 세계’라는 주제로 재구성하고 평가하였다.

다만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간행되지 않았고, 《客商一覽醒迷》에 반영된 상업용어에 대한 소개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客商一覽醒迷》의 번역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여 많은 독자들이 접근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客商一覽醒迷》의 주요 주제인 상업용어에 대한 고찰은 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11) 이하 구체적인 서목은 본고의 참고문헌으로 대체한다.

12) 부산대 사범대에 재직 중인 홍성화교수는 필자에게 일본 山口大學 소장의 《客商一覽醒迷》 원본의 사본을 제공해 주었다. 이 지면을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 3) 연구방법

본고의 연구방법은 《客商一覽醒迷》의 번역과 상업용어에 대한 고찰을 초보적으로나마 진행할 수 있기 위해 설계되었다. 《客商一覽醒迷》는 다수의 산문과 일부 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번역의 문제도 당연히 이 두 서로 다른 문체를 각각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텍스트가古籍이므로 校勘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客商一覽醒迷》의 문체가 일반 전통 중국 문헌과는 다른 측면이 많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번역문제에 관련해서는 원문의 교감문제, 《客商一覽醒迷》의 독특한 표현, 산문과 운문의 번역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감의 문제란 일차적으로 원본인 山口大學본에 대한 교감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양정태의 교주본이 유일한 현대적 판본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교감이 필요할 것이다. 《客商一覽醒迷》의 텍스트와 관련된 독특한 표현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다른 문헌에 보이지 않는 상업서에만 보이는 표현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客商一覽醒迷》에 포함된 근대중국어 성분이다. 근대중국어 성분은 고문과 현대중국어와는 다른 영역의 언어이며, 명대의 저작인 《客商一覽醒迷》에 이 근대중국어 성분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므로 번역 과정에서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번역문제와 관련하여 이상의 문제를 원문의 예시와 初譯을 제시하며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상업언어의 풀이는 범위의 설정에서 지면관계로 이음절어 근대중국어 또는 고문 이외의 언어단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客商一覽醒迷》에는 상당수의 상업어휘가 출현한다. 그러나 상용하는 단음절어나 일반적인 의미로 따로 연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본고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러한 때만이 《客商一覽醒迷》에 반영된 고유의 언어적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적에서 보이지 않는 의미 있는 언어단위에 대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대략의 상황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석은 몇몇 단어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사용하는 《客商一覽醒迷》의 텍스트는 山西人民出版社에서 1992년에 출간한 楊正泰校注本임을 밝혀둔다.

### 3. 《客商一覽醒迷》의 번역과 상업언어

#### 1) 《客商一覽醒迷》의 번역문제

고전의 번역은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원래의 필자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긴 시간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思想書의 번역에서는 그 사상의 요체를 꿰뚫고 있어야만 하나의 호흡으로 해당 전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바탕위에 비로소 지금의 언어로 옮겨낼 수 있다. 또한 언어적인 문제로 보자면 문자의 교감과 그 텍스트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표현방법 등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번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텍스트가 古語로 되어 있다면 통시적인 어감에 해당하는 고전을 번역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언어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일반론적인 접근 이외에도 문자적인 교감이나 판본간의 대 비등 문헌학적 작업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 (1) 문자교감

고적을 다루는 첫 걸음은 문자의 교감이다. 특히 하나의 경우 이체자나 간체자 등이 많이 존재하며 판본에 따라 서로 다른 글자를 쓰기도 한다. 특히 중국의 고적은 문자적인 교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客商一覽醒迷》는 주지하듯이 상인이나 상업과 관련된 제한된 신분의 사람들이 보던 책이다. 그리고 경전류 저작과는 달리 엄밀성이나 정자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客商一覽醒迷》에는 다수의 간체자가 사용되었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1) 財爲養命之源, 人豈可無有! 而不會營運, 則蠶食易盡, 必須生放經商, 庶可獲利, 爲資身策也。(270쪽)<sup>13)</sup>  
 재물은 생명을 양육하는 근본이 되므로 사람에게 어찌 없을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을 운영할 줄 모른다면 잠식되어 쉽게 소진될 것이니 반드시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얻거나 상업에 종사해 이문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길이 될 것이다.
- (2) 賣貨不曰客克, 或衆强成, 或牙捺壓, 皆非公平交易, 難免會帳無低昂爭也。(279쪽)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객상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어떤 경우는 여러 사람이 강제로 성사시키고 어떤 경우는 아행이 압력을 행사하니 모두 공평하지 않은 교역이어서 장부를 결산할 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얼굴을 쳐들어 싸우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

예문 (1)과 (2)에 보이는 ‘盡’과 ‘難’은 山口대학 원본에는 각각 ‘盡’과 ‘難’으로 되어있다. 양정태의 교주본이 일률적으로 번체자를 채택하고 있어 원본의 속자 또는 간체자를 임의로 번체화 시킨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수의 속체자는 당시 민간이나 비 정식 문서에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客商一覽醒迷》의 텍스트적인 속성 즉 정통 문헌이 아닌 통속적인 성격을 대변해 준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번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正字와 俗字의 관계 같지만 문자적 교감을 통해 이러한 것과 거리가 먼 예도 있다.

- (3) 對客坐間, 或與家人耳邊唧拶(-才+口), 言不出聲; 或家僕之類, 掩藏撫拾, 衣包背攜, 低頭邪視出入者, 非家中有事, 卽易換飲食, 艱難輾轉物件也。(274쪽)  
 손님이 와 앉아 있는데도 집안사람과 귓속말로 소곤대기만하고 소리를 내지 않거나, 집안에서 일하는 노복들이 주섬주섬 주워서 숨기고 등에 둘러맨 것을 옷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이고 출입하는 사람을 결눈질하여 살피는 것은 집안에 일이 있지 않으면, (아행이 객상을 대접하는) 음식종류를 바꾸고 곤란하다는 핑계로 물건을 (품질이 나쁜 것으로) 돌리는 것이다.

13) 이하 楊正泰의 校注本の 쪽수를 따른다.

- (4) 牙家接客, 家僮之輩衣裙絲縷, 鞋襪穴穿, 面垢頭蓬, 老充幼使, 此是真貧之家。(274쪽)

중개인이 손님을 접대하는데 그 집안의 노복들의 옷이 헤지고 신발과 양말에는 구멍이 나있으며 얼굴에는 땀국물이 흐르고 머리카락은 새집을 짓고 늙거나 어린 노복들이 분주하기만 하면(늙은 노복을 젊은 노복이 해야 하는 일에 충당한다면) 이는 정말로 가난한 집이다.

예문 (3)과 (4)는 ‘家僕’와 ‘家僮’의 ‘家’는 山口대학 원본에 ‘价’로 되어있다. 만약 이 예들을 앞의 (1)이나 (2)의 경우처럼 正字와 俗字의 관계로 보거나 ‘家’를 ‘价’로 잘못 쓴 것이라고 판단하면 잘못을 범하게 된다. 고서의 경우 근접한 단락에서 유사한 착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선 여기의 ‘价’는 ‘價’의 속자 또는 간체자가 아니다. 《詩經》에 “价人維藩”이라는 구절이 보이며 여기에서의 ‘价’는 ‘값’이라고 풀이하는 경우나 ‘善’으로 풀이하는 두 갈래의 주석이 있다. 후대에 ‘善’의 의미에서 파생되어 ‘~를 잘하는 [사람]’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宋史》에 보이는 ‘鄰道守將走价馳書來詣.’에서 ‘走价’는 바로 ‘파발을 전하는 잘 걷는 걸음꾼’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용법으로 ‘价價’이나 ‘价婦’라는 단어가 있으며 그 의미는 각각 ‘導引和接待賓客之人’<sup>14)</sup>와 ‘仆妾’<sup>15)</sup>이다. 그러므로 양정태 교주본의 (3)과 (4)에 보이는 ‘家僕’과 ‘家僮’은 ‘价僕’과 ‘价僮’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번역에서도 ‘집안의 노복’이 아니라 ‘노비’ 또는 ‘어린 노복’ 등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하나 더 들면 다음과 같다.

- (5) 禮貌謙逾, 心中叵測. 起坐眞率, 面亦無阿。(273쪽)
- 행동거지가 예의바르고 지나치게 겸손한 자일수록,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고, 행동거지가 진솔할수록 얼굴에 아첨하는 기색이 없는 법이다.

양정태의 교주본에 ‘逾’로 되어 있으나 山口대학 원본에는 ‘迂’로 되어 있다. 어

14) 金 馮璧《雨後看並玉所控諸峰》詩：“接武如朋簪，承迎如价價。”  
 15) 清 梁章鉅《稱謂錄·婢》：“价婦：《留青集》：“价婦，僕妾也。”

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의미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된다. 만약 ‘逾’로 본다면 ‘예를 갖춘 모습이 지나치게 겸손하다’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 번역은 어법이나 어감으로 볼 때 억지스런 구석이 없지 않다. 그러나 山口대학 원본대로 번역하면 오히려 순통한다. ‘迂’는 ‘曲折’ 또는 ‘말이나 행동 또는 견해가 진부하고 시의에 맞지 않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를 번역해 보면 ‘예를 갖춘 모습이 지나치게 겸손하고 형식에 얽매어 진부하다’로 보면 뒷 구절과의 호응이 자연스럽다. 게다가 현대중국어로 보더라도 성口와 운모가 비록 같지만 성조가 ‘迂’는 陰平이고 ‘逾’는 陽平이므로 同音관계가 아니다. 중고음에서 보더라도 전자는 云母 撮口三等字이고 후자는 以母 撮口三等字이므로 엄격히 말해 동음이 아니다. 양정태본에서 왜 이렇게 전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번역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착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도 단순한 오류도 발견되는 바 문자교감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주의해야 하는 예를 보기로 하자.

- (6) 財者通行蠻貊，雖嬰孩亦所知。愛是以人多競求強取，致有喪身失德，忘恥受辱，甘當無悔。其知義安分，不事妄貪者，世之罕有。  
(270쪽)

재화는 변방의 四夷지역에서도 통행되고 젓먹이나 어린 아이라 할 지라도 아는 바이다. 애착이라는 행위는 사람들이 대개 경쟁적으로 구하고 강제로 취하므로, 몸을 망치고 덕을 잃으며, 수치를 잊고 욕을 먹으며, 즐거이 감당하여 후회하지 않는 데까지 이른다. 의를 알고 본분에 안주하며 망령된 탐욕을 일삼지 않는 자는 세상에 드물다.

예문 (6)에는 ‘悔’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옹당 ‘悔’로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수정을 가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번역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상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문자교감은 원문의 정확한 용법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며, 특히 고적의 번역에서는 엄밀한 교감과 이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상업서의 특이 표현

일반적으로 경전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활용해 풍부한 자료와 다양한 주석서가 전해져 온다. 한편 문학작품은 친근한 생활용어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접근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전문서적이거나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만 보던 책은 다양한 주석이나 방계자료가 많지 않으며 게다가 사용하는 언어나 서사방식 또한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더해 준다. 《客商一覽醒迷》는 상업서이다. 그러므로 주요 화두 자체가 상업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과 이 텍스트 내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양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번역은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이 방면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 (7) [원문]取帳誇能威彼懼, 討期言外啓人寬。(288쪽)  
장부를 다루는데 능력을 과시하면 상대를 위엄으로 겁주는 것이고, 기한을 정할 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 상대는 기한을 늘일 수 있다고 여기게 할 수 있다.  
[주석]主家同客到入店中取帳, 約期不以緊切直言, 返以別事談講, 延蔓<sup>16)</sup>扯拽良久, 方及正事, 則人以爲可緩, 決不爲急還計也。若笑舞誇己之能, 及稱善于詞訟者, 此皆欲張己威而使彼畏懼<sup>17)</sup>矣。  
(288쪽)  
아행이 객상을 데리고 어떤 사람의 가게에 가 장부를 다루면서 기한을 정할 때 절실하게 직언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일로 말을 걸고 오랫동안 길게 끊이지 않고 한담하다가 그 사안에 대해 언급한다면 그 가게의 주인은 상환일시를 늦출 수 있다고 여기게 되니 이는 결코 빨리 돌려받기 위한 계책이 될 수 없다. 만약 웃음을 날리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송사에 능하다고 말한다면 이는 다 자신의 위엄을 늘어놓아 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 (8) [원문]圖多用而帳野, 爲酒食以限遲。(288쪽)  
구전을 많이 바라면 장부가 부실해지고, 지나친 접대를 받으면 기한이 늘어진다.

16) 山口大學 원문에는 '延蔓'으로 되어 있다.  
17) 山口大學 원문에는 '攝'으로 되어 있다.

[주석]經紀發貨，惟圖多取，用錢不顧客本，彼肯貴價賒者，斷然乏本空虛，不可不察。及以頻頻酒食款待，延捱限期，此等鋪家最防覺。(288쪽)

중개인(거간꾼)이 물건을 낼 때는 오로지 많은 用錢(즉 口錢: 흥정을 붙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을 취하여 객상의 본전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법이다. 중개인이 높은 값으로 외상거래를 하려한다면, 필시 본전이다 떨어진 경우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빈번히 술자리를 만들어 후한 접대를 하며 기한을 미루려는 경우에는 이런 가게들에 대해서도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예문(7)에 보이는 取帳, 誇能, 討期, 主家, 約期, 笑舞誇己, 欲張己威, 使彼畏懼 또는 예문(8)의 帳野, 限遲, 經紀, 發貨, 客本, 鋪家 등은 상업행위나 관습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바로 이해하기 힘들며 상거래를 둘러싼 쌍방 간의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매끄럽게 번역할 수 없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우선 작가의 머리 속으로 들어가 그가 그리고 있는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그런 후에 구체적인 문맥이 말하려는 바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만 제대로 된 번역을 수행할 수 있다.

(3) 문체에 따른 번역문제

앞에서 살펴 본대로 《客商一覽醒迷》는 크게 산문부분과 운문부분으로 나뉜다. 산문부분은 산문의 기능적인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상업서가 가져야할 교훈적인 내용이나 警策 등이 주요 내용이므로 번역의 문체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9) [원문]格船行李瀟然，定是不良之輩。(296쪽)

배를 타는데 짐이 간단하면 틀림없이 불량배이다.

[주석]同船搭船之人，或人物衣冠整齊，無甚行李，蹤跡可疑之者，非拐子<sup>18)</sup>即掏摸<sup>19)</sup>吊剪之流。或自相賭戲以煽誘，或置毒餅果以迷人，或共夥黨而前後登舟，或充正載而邀吾入伴者，不識其

18) 사람이나 재물을 속여서 빼앗는 사람을 말한다.  
19) 掏摸는 도둑을 가리킨다. 明 楊慎, 《升庵經說·周易·坎爲盜》:“項氏謂月行於夜爲盜象…(餘弟)用敘曰:盜可配天, 則天是窩主, 星辰皆掏摸矣.’其言雖戲, 亦有理.”

奸，財本遭擄。又蘇、杭、湖船人載人居上層，行李藏於板下，苟不謹慎，多被竊取。(296쪽)

같은 배를 타는 사람이 인물이나 옷차림이 번듯하고 별다른 짐에 없고 종적에 의심스러운 자는 사기꾼 아니면 좀도둑, 소매치기 따위이다. 혹은 자기들끼리 짜고 도박 놀음으로 (못사람을) 부추겨 속이려하거나, 독이 든 음식으로 혼미하게 하며, 혹은 공모하여 패거리를 짜서 앞뒤로 승선하거나, 혹은 선주로 가장하여 나를 같은 무리에 끌어 들이려 하니 그들의 간계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재물과 본전을 약탈당할 수 있다. 또 蘇州, 杭州, 湖州 등지의 뱃사람들은 승객은 윗 층에 짐은 갑판 아래에 두니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절도를 당할 우려가 크다.

(10) [원문]老舟槳帆朽壞，應防風浪之危。(296쪽)

낡은 배는 노나 돛이 썩어 파손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풍랑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주석] 偏船必要看新舊，若舵損帆穿，通舟板片板腐者，不耐風浪，恐防傾覆之危。(296쪽)

배를 빌릴 때는 반드시 새 배인지 낡은 배인지를 보아야 하며, 만약 조타(키)가 망가지고 돛이 찢겨지고 온 배의 선체나 갑판의 나무가 갈라져 있거나 썩은 경우 풍랑을 이기지 못하니 배가 전복될 위험에 만전을 기해 대비해야 한다.

앞의 두 예에서 보듯 산문부분의 내용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제시하여 客商이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하는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번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문문체의 번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 고전에서 운문은 기본적으로 음악에 맞추어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가사이다. 게다가 고도의 문학적 추상을 통해 표현된다. 그러므로 운문의 번역에서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충분히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詩句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아래는 〈悲商歌〉 제23수부터 제26수까지이다.

(11) 故園花發誰同賞？旅邸淒涼我獨悲。衣錦夜行人不見，他鄉富貴有何爲。(300쪽)

옛 동산에 꽃이 피면 누구와 함께 감상할까? 여관의 처량함에 나

- 만 홀로 슬프구나. 비단옷을 입고서 밤길을 다녀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 남의 동내에서 부귀를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12) 柳下池邊襪襪樣, 素紈湘簟黑恬眠。不安此樂離鄉國, 涉水登山冒酷炎。(301쪽)
- 연못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패랭이 모자를 쓰고 있고, 회고 가는 비단옷에湘지방 특산 대나무 자리에서 깊은 잠을 잤었네. 이러한 소소한 낙에 만족하지 않고 고향을 떠나 산 넘고 물 건너 모진 더위를 무릅쓰네.
- (13) 砧聲偏向愁人急, 木瑟難堪靜坐時。對菊眼前非骨肉, 可憐身被利羈縻。(301쪽)
- 다듬이 소리가 하필이면 사람을 더 수심에 빠지게 하고, 나무 거문고 소리가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들게 하네. 국화를 마주하나 눈앞에는 가족이 아니며, 가련한 이내 몸은 이익에 얽매이고 말았네.
- (14) 湯婆伴我衾猶冷, 獸炭頻烘背怯單。未似細君團一塊, 冰霜三尺不知寒。(301쪽)
- 뜨거운 물주머니를 끼고 있어도 이불 속은 여전히 차갑고, 짐승 모양으로 만든 숯불로 아무리 여러 번 덥혀도 등짝은 흘겁 옷을 입은 듯 춥구나. 아내와 한 덩어리가 되는 것만 못하네. 그러면 얼음이 삼척이나 되어도 추운 줄 모르련만.

이 네 수의 시구는 일견 유사한 情調로 각기 다른 것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가운데로 들어가 핵심 詩語를 찾아가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1)의 花發, (12)의 素紈湘簟, 酷炎, (13)의 對菊, (14)의 湯婆, 衾猶冷, 獸炭, 烘背, 冰霜, 寒 등의 시어에 주목하면 어렵지 않게 이 네 수가 春夏秋冬의 정경을 자연스럽게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운문에 나타난 시어의 특징으로부터 그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수준 있는 번역을 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운문 번역에서 번역문의 문체에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한다. 앞의 번역에서 보듯 다소 입에는 붙지 않지만 시적인 번역을 시도하고 완성해나가야 비로소 운문 번역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客商一覽醒迷》의 번역에 대해서는 텍스트와 언어 그리고 주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2) 《客商一覽醒迷》의 언어문제

《客商一覽醒迷》의 언어문제와 관련하여 주의할 만한 것은 근대중국어 성분의 반영과 많은 상업용어의 출현이다. 이 소설에서는 바로 이 두 주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1) 근대중국어 성분의 반영

《客商一覽醒迷》에는 왜 속어 또는 구어로 일컬어지는 근대중국어 성분이 많이 포함된 것일까?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客商一覽醒迷》의 저자나 독자는 사상적인 굴레나 지나친 격식이 필요하지 않아서 일 것이다. 상업서는 상인을 대상으로 저술된 것이다. 내용이 중요하지 과거나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경전의 학습과 같은 일률적인 古文專用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어가 반영된 속담이나 성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 진다.

이 책의 저자 이진덕은 명대 복건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적 배경과 명대리는 사회언어학적 환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명대의 사대기서는 장회체를 토대로 전형적인 구어로 기록되었다. 상업과 도시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통속소설의 구어화는 독자의 수요나 문학적 토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복건 출신의 남송 유학자 朱熹(朱子)의 경우에도 그의 서간문이나 어록에 강한 구어성분이 남아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만약 정통 경전학문이 아니라면, 게다가 특수한 신분인 상인 등이 갖추어 일상적으로 본 상업서의 경우 語體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어체의 자유로운 선택 혹은 구사는 명대 이후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5) 攬掇買, 攬掇賣, 豈良主之心。 不强人, 不强貨, 是賢東之德。

(283쪽)

사도록 부추기고 팔도록 중용한다면, 어찌 좋은 주인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물건을 강요하지 않는 것은 좋은 아행의 미덕이다.

有等經紀惟圖牙用，不當買之物，攬令客買，不可賣之貨，攬令客賣，以致折本徒勞，其過豈小。彼賢東主者，既不募人邀客，又不強客起貨，在客自投，聽其自便。(283쪽)

어떤 아행들은 단지 중개 수수료를 도모할 목적으로 사서는 안 될 물건을 객상더러 사도록 중용하고 팔아서 안 될 상품을 객상더러 팔도록 강요함으로써 본전을 밀치고 헛수고 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니, 이런 잘못이 어찌 작다 하겠는가. 좋은 아행은 사람을 모아 객상을 끌어들이지 않고, 또 객상에게 강제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지 않고, 객상이 직접 판매할 때에 그가 편한 대로 하도록 둔다.

이 예문에 보이는 '攬掇'는 송대의 新詞로 '중용하다', '독촉하다', '처리하다', '도와주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중용하다', '독촉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漢語大詞典》에서 인용하고 있는 텍스트는 《朱子語類》, 《水湖志》, 《金瓶梅詞話》, 《西游記》 등과 같은 백화 어록이나 소설들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客商一覽醒迷》의 어체 또한 이들 작품들과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구어화된 언어단위의 활용은 다른 문학작품이나 어록체 문장보다 현격히 떨어진다.

한편 방언어휘로 분류할 수 있는 용례도 발견되었다. 아래는 〈警世歌〉 제14수이다.

(16) 讓人誰道我痴癡，息氣輸爭勝得之。四體不勞心自泰，恐驚無擾夢魂時。(303쪽)

남에게 양보한 것을 보고 누가 나를 바보라고 하지만, 기세를 식히고 싸움에서 패했다 하지만 승리를 얻은 것이라네. 몸도 힘들지 않고 마음도 편안하여, 아마도 꿈속의 혼령을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라네.

이 문장에 보이는 恐驚은 《漢語大詞典》 등의 대형사서에 보이지 않는다. 이 단어는 閩南語로 恐怕(아마도)의 의미이다.<sup>20)</sup> 驚에도 '놀라다'의 뜻이 있으므로 '怕'와 마찬가지로 '恐'과 같이 사용된 유추의 예이나 다른 방언이나 현대 표준중국어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방언어휘라고 초보적으로 단정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책의 저자 이진덕이 바로 복건사람이라는 점이다. 물론 명대의 恐驚이 그대로 閩方言에 남아있다는 확증은 없지만 최소한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렇듯 《客商一覽醒迷》의 어체는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바로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상업서 이외의 언어적인 연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2) 《客商一覽醒迷》의 상업용어

상업어휘는 어휘학에서 전문용어에 속한다. 즉 해당 언어의 기본어휘나 상용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파트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라는 의미이다. 상업서로서의 《客商一覽醒迷》에는 다수의 상업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상업어휘 중 買, 賣, 貨物, 物件, 主人 등과 같은 古語에서 이미 사용되었거나 단어 자체로 의미상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은 굳이 《客商一覽醒迷》를 통해 고찰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근대중국어 시기의 이음절 상업어휘를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상업어휘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영역 중의 하나는 상업어휘의 분류이다. 어휘의 분류는 형식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이 있지만 전문용어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용적 분류가 더 비중이 있다. 이를테면 거래당사자, 계약관련, 운수관련, 상품관련, 계약관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거래당사자를 예로 들면 買主, 賣主, 客商, 牙行, 主人 등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내용적 분류는 한 텍스트에 출현하는 모든 특정 전문용어가 수집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에는 古語나 구어 성분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분류어휘의 취지는 바로 한 텍스트 혹은 특정 조건하의 모든 어휘를 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내부의

20) [http://twblg.dict.edu.tw/holodict\\_new/result\\_detail.jsp?n\\_no=6002&curpage=1&sample=%E9%A9%A&radiobutton=1&querytarget=1&limit=100000&pagenum=1&rowcount=32](http://twblg.dict.edu.tw/holodict_new/result_detail.jsp?n_no=6002&curpage=1&sample=%E9%A9%A&radiobutton=1&querytarget=1&limit=100000&pagenum=1&rowcount=32) 참조.

구성원 간의 관계나 빈도 등을 조사해야 만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필자의 연구 진도는 아직 《客商一覽醒迷》의 전체 상업어휘를 수합하지 못했다. 게다가 본고의 연구목적은 근대중국어 평면의 상업어휘의 면모를 살피는 데 있으므로 분류작업은 차후의 연구로 미룬다.

그렇다면 《客商一覽醒迷》에 반영된 근대중국어 상업어휘의 진면목은 어떠한가? 다음의 예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접전하기로 하자.

(17) [원문]相見恭而席豐, 貨鋒有價。(273쪽)

서로 대하는 것이 공손하고 대접이 풍성하면, 상품은 잘 팔리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주석]主人初會, 恭敬盡然, 出于分外, 酒席破格豐盛, 跟從權騰, 情意甚熾, 則知貨有價而鋒快也。(273쪽)

주인과 처음 만났을 때 공경하는 모습이 넘쳐 과도한 듯 하고, 술자리가 파격적으로 풍성하며, 아랫사람들도 크게 환호하고 情意가 매우 좋으면 상품은 가치가 있으며 매우 잘 팔릴 것임을 알 수 있다.

(18) [원문]跟隨緩而款略, 本少且遲。(273쪽)

아랫사람의 행동도 느릿느릿하고, 대접이 소홀하면 본전이 적고 상품도 잘 팔리지 않은 까닭이다.

[주석]客到主家, 而主僕不甚緊隨, 款待疏略, 不以爲意, 非貨遲而因本少也。(273쪽)

객상이 아행의 집에 도착하였는데도 주인과 노복이 그다지 긴밀하게 따르지 않고 접대도 소홀하며,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상품이 잘 안 팔리거나 아니면 본전이 적기 때문이다.

예문(17)의 [원문]에 보이는 貨鋒과 [주석]에 보이는 鋒快는 언 듯 보기에는 그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아래의 예문(18)에 遲와 貨遲가 보여 앞의 貨鋒 또는 鋒快와 대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양정태 교주본의 貨鋒에 대한 풀이는 ‘容易銷售的貨物, 喻搶手貨’라고 하여 鋒의 의미에 잘 팔린다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鋒의 반의사인 遲는 잘 팔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鋒과 遲는 당시 상인들이 사용하던 전문용

어였고, 그 중 鋒快는 이음절화 된 하나의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어휘는 속어에서 기원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19) [원문]門前久坐, 專等姨夫. (273쪽)

문 앞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은 오로지 姨夫錢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주석]若無貨之客, 久坐門前. 如失魄喪神, 顏色憔悴, 強爲談笑者, 必巴巴望眼, 專等新來之人, 以代己歸. (273쪽)

만약 상품이 없는 객상이 오랫동안 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혼이 나가고 정신이 없으며, 안색은 초췌하며 억지로 떠들거나 웃는 자는 반드시 새로운 객상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예(19)의 [원문]에 보이는 姨夫는 글자 그자체로만 보면 이해가 쉽지 않다. 여기서 姨夫가 비유하는 것은 姨夫錢이다. 姨夫錢은 순환해서 끌어다 쓰는 남의 돈(指可供循環挪用的他人的錢財)을 가리킨다. 홍성화 교수는 그 이유를 남편이 죽으면 첩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姨'는 쫓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漢語大詞典》에는 明 郎瑛《七修類稿·奇譚二·姨夫錢》:“杭有無賴子某, 祖起延商貨賣. 後至無賴, 因不事生而貧矣, 然尚業其祖父. 有客至, 則入其財爲己有. 客索時, 則又俟後客之貨轉賣以償焉. 年復年, 客復客, 名曰姨夫錢. 蓋以夫死姨復可以嫁人之意耳.”를 인용하고 있어 홍 교수의 의견과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客商一覽醒迷》의 체제가 [원문]과 [주석]을 이루어져 있으므로 [원문]의 어떤 구절에 대한 풀이가 [주석]에 보이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가 그것이다.

(20) [원문]上下視而吐語, 料量算人. (272쪽)

아래위로 훑어보면서 말을 내뱉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주석]乍見會語之間, 便不出口, 以目上下估看, 方露微言, 則其心

中打量, 必有所計較耳. (273쪽)

잠깐 만나서 말을 나누는 사이에도 말을 곧바로 꺼내지 않고 눈으로 사람을 아래위로 훑어보면서 헤아린 다음에 비로소 간단한 몇 마디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가늠하면서 반드시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경우 [원문]에는 料量算人이라했고 [주석]에서는 打量과 計較로 풀었다. 그 중에 料量과 打量은 한 조의 동의사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체제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생경할 수 있는 근대중국어 상업어휘의 풀이도 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다.

#### 4.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대로 《客商一覽醒迷》는 중국 명청대의 대표적인 상업서로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 된 일은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문화의 이해와 상업서의 이해를 목적으로 《客商一覽醒迷》의 부분적인 번역과 상업어휘에 대한 소개를 시도했다.

우선 2장에서는 《客商一覽醒迷》의 내용과 체제를 소개하고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서 본고의 연구방법을 제시했다. 특정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체제의 소개가 필요하고, 선행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존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3장의 첫 번째 내용은 《客商一覽醒迷》의 번역문제이다. 여기에서는 문자교감, 상업서의 특이한 표현, 문체에 따른 번역문제 등을 다루었다. 아무래도 《客商一覽醒迷》이 전통 문헌과 성질이 다르며, 지금까지 번역서가 없었으므로 이들 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客商一覽醒迷》의 언어문제를 다루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대중국어 성분의 반영, 상업용어 등으로 나누어 서술했다.

이러한 시도가 향후 《客商一覽醒迷》의 이해와 연구에 도움이 되기 바라마지 않는다. 번역에 있어서는 그간 주석서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매 글자를 찾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 제대로 된 완역본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상업어휘는 《客商一覽醒迷》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될 필요가 있다.

#### 〈參考文獻〉

- (明) 李晉德著 楊正泰校注 《客商一覽醒迷》，山西人民出版社，1992.9
- 郭孟良 張繼紅，〈明清商書의 出版傳播學考察〉，《編輯之友》，2009/10.
- 大林洋五，〈資本主義의 精神-李晉德《客商一覽醒迷》를 めぐって〉，Asian economic review 60(1)，105-116，2001.8.31.，Yamaguchi University
- 斯波義信，〈新刻客商一覽醒迷天下水陸路程〉，森三樹三郎博士頌壽記念事業會編，《東洋學論集：森三樹三郎博士頌壽記念》，朋友書店，1979.
- 山根幸夫，〈批評と紹介：楊正泰 校注，《天下水陸路程》・《天下路程圖引》・《客商一覽醒迷》〉，《東洋學報》75-1・2，1993.
- 余英時著，《中國近世宗教倫理與商人精神》，安徽教育出版社，2001
- 張海英，〈從明清商書看商業知識的傳授〉，《浙江學刊》，2007/02.
- 張海英，〈日用類書中的“商書”——析《新刻天下四民便覽三台萬用正宗·商旅門》〉，《明史研究》，2005.
- 周海燕，〈論明清商書的旅遊學價值〉，《重慶科技學院學報(社會科學版)》，2012/22.
- 陳學文，〈明代一部商賈之教程、行旅之指南——陶承慶《新刻京本華夷風物商程一覽》評述(明清商書系列研究之七)〉，《中國社會經濟史研究》，1996/01.
- 陳學文，〈明清時期商業文化的代表作《商賈便覽》——明清商書研究系列之十〉，《杭州師範學院學報》，1996/02.
- 陳學文，《明清時期商業書及商人書之研究》，臺北：洪業文化事業有限公司，1997. 下篇 第3장 〈苦心勸誡，合理經商- 客商一覽醒迷天下水陸路程對於商賈職業道德的論述〉
- 洪成和，〈明代後期 商業書를 통해서 본 客商의 윤리의식〉，《中國史研究》，제56집，2008.

〈中文提要〉

在中国历史上可能没有比明清时期的商业更加发达的朝代了。商业的发展必然会给社会带来巨大的变化,文化或是语言同样也不能免俗。从中国文化的角度来看商业的发展是建立在一定的经济基础与频繁多样的交流之上的。明清商业的发展不仅反映在经济指标与贸易往来上,还体现在商业意识的发展,甚至是出现了商业书这样的专业书籍。所谓的商业书就是对商业相关知识及道德规范进行整理的图书,这类图书的正式出现是在明代以后。

《客商一览醒迷》是福建商人李晋德于崇祯8年刊行的商业书。与其它中国传统文献不同,《客商一览醒迷》做为一本商业图书,不仅在学界未得到重视,就连一本像样的注解都没有。因此,此书的介绍与翻译就成为我国的中国史学界及与中国文化相关的研究者所应该承担的一项责任。另外做为一本商业书来说,其对于我们研究和分析当时的商业语言也是具有一定意义的。

因此,本稿对《客商一览醒迷》的介绍与翻译尝试性的做了一些见解,并对商业书中的标志性的商业词汇做了大致的说明。

希望这样的尝试能为日后对《客商一览醒迷》的理解与研究提供一定的帮助。在翻译方面,为了能达到成为注释的水准,希望学者们应该逐字逐句翻译,因而日后能得到一部完美的译本。商业词语是《客商一览醒迷》的核心内容,因此往后有对其进行多样化研究的必要。

关键词:《客商一览醒迷》,商业书,明清时代,翻译,商业词汇

이 논문은 2014년 10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11월 8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11월 15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